

제목: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16절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이 편지에 결론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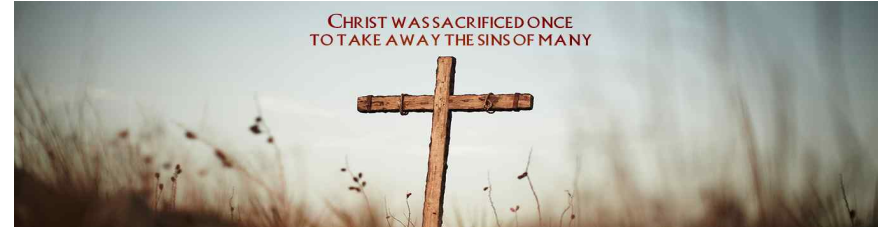
1. 피하라. (11절)
2. 따르라. (11절)
3. 싸우라. (12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니카라과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운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김종현/김유경 선교사	선교사 파송 및 교회를 떠난 청년 사역(한국)
제이넵/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현지인으로서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레미야 11장 4절)  
 “Let us obey our God” (Hebrews 12: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 디모데전서 6장 11-16절 ..... 설교자  
 Scripture Reading 1 Timothy 6: 11-16 신약 341 페이지 Presider
- 말씀 ..... “너 하나님의 사람아” .....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 담임목사 컬럼 (너무 더워서 힘이 든다)

날씨가 이전과 같지 않다. 정말 온난화가 진행되는 한 것 같다.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기후 변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난주 100도를 훌쩍 넘었을 때에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2시간가량 운전해서 바닷가로 가면 온도차가 20도 정도 된다. 더 시원하다는 것이다. 여기는 100도 운운했지만 바닷가는 그때에 80도였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고 시원한 곳을 선호해서 그곳으로 이사를 할 것인가? 그럴 수 없는 이유는 그곳으로 가면 덜 춥고 또는 덜 더울 수는 있지만 이곳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 그리고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형제자매들을 더 이상 가까이에서 교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감안하면서까지 바닷가로 이사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더운 것 보다 그러한 관계와 신앙생활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더운 것으로 잃는 것 보다 그런 관계와 영적인 자라남의 얻는 것이 더욱 많게 된다. 우리는 외부의 영향보다도 내 안에 믿음의 성숙함을 위하여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삶에 중요성을 알고 살아가야 한다. 하지만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가당치 않다.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라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며 이것을 하고 또한 버리기도 한다면 쉽게 신앙생활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시는 교회도 등질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분들을 본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이 맞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나의 친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쟁 이전 일제 말기에 북한 신의주 가까이에 있는 철산이라는 시골에서 평양이라는 교회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셔서 장대현 교회라는 곳과 산정현 교회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며 생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기억이 있다. 지금까지도 나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1.4 후퇴 때에 홀로 남한으로 피난 오실 때까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기억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신다. 얼마나 믿음생활을 떠나지 않고 더 잘하기 위하여 한 결정이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지 내가 산 증인이 되었다.

지금도 많은 믿는 성도들이 나이 들며 다니는 교회 옆으로 이사하는 것을 소원한다. 그래야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게 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된다. 덥고 추워서 또한 멀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혹은 찾아가기 어려워서...라고 하며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를 멀리한다면 그 인생은 쉽게 믿음생활을 떠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너무 더웠다. 하지만 그 더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며 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흔들리지 않는 전천후 신앙생활이 되도록 힘을 내야겠다. 유럽의 교회 중에는 바캉스 시즌에 3개월 무조건 교회 문을 닫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3-4교회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말만 할 수 있을까? 믿음 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김예식 집사님과 최운서 장로님의 회복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슬람 지역에 개척교회를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김은경 선교사님의 건강  
김인선 선교사: 학교사역과 사무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임철현, 임운실 선교사: 1월 한글학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김종현, 김유경 선교사: 선교 동원사역 및 한국 청년사역 (교회를 떠난)  
제이넵, 쟈기즈 사역자: 터키키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8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5. 7월 행사

목자 훈련	오늘	예배당
목장 모임	8월 20일 주중	각 목장에서

###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http://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mailto:newchurchoregon@gmail.com)